

1. 웹상에서 나의 작업, 작업 과정, 생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고 싶나요? 혹은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온 오프라인 둘 다 할 수 있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완성작(제대로 된 작품..?) 위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온라인에서는 에스키스, 망친 작업, 드로잉, 컬러칩, 관련된 내 작업에 영감을 준 이미지 등등.. 내 작품의 뒷배경, 작업 공간, 히든 스토리, 비하인드 무대.. 같은 느낌으로 웹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찍은 게 아니지만 날 것의 느낌이 나는 듯한 작업 과정 이미지 사진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작업 과정에서 어떤 간식 먹었는지 보여줄 수도 있다!

온라인은 사적인 공간에 들어간 느낌을 준다면 오프라인에서는 더 정적이고 위엄있는 전시장의 느낌인 것 같다. 오프라인에서 전시 서문에 작품 설명이 있으니 웹에서는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적는 건 지양하고 싶다. 오히려 너무 다 웹에 적어버리면 오프라인 전시에 안오지 않을까..?(이미 다 작품을 봐 버렸단 느낌..?)

2. 작업 자료 받아도 될까요??(작업실 풍경, 작업 사진, 작가 노트, 스케치) 네!!

3. 내가 생각하는 내 작업실은?? 작업실은 위에 첨부했던 사진처럼 실제 존재할 것 같은 작업실이어도 되고 숲 같은.. 전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작업실이어도 돼요.(작가의 작업 세계와 연결이 되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3차원으로 벽과 바닥이 존재하는 형태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자다가 떠오른 생각인데,, 1번에서 말한게 비하인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창고같이 어둡고 막 어질러진 실험실 같은 느낌?? 망한 공장에 들어간 폐허..같은 느낌? 막 웹에서 사람들이 내 작업실 보기 전에 “손전등을 찾으세요.”같은 미션을 줘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혜진은 창과 문을 매개로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을 넘나든다. 유리창을 볼 때 우리는 유리에 비치는 안쪽 풍경과 유리 밖에 보이는 풍경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여러 시간대와 계절, 빛의 효과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모티브로 지금 자신이 있는 장소와 그 너머의 공간이 뒤섞이면서 내가 있어야 하는 공간이 어디일지, 내가 있고 싶은 공간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끊임없이 탐구해간다. 정혜진은 숨 쉬고 있는 시간 동안 매일 꿈꾸는 이상향과 실제 체험하고 있는 현실의 장소를 그려낸다.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추상적인 기호로 표현된다. 하지만 정혜진의 회화 작품은 한 화면에 뒤섞인 모습을 표현하면서도 분리되어 보이기도 한다. 그녀는 현실과 꿈의 어느 경계를 늘 인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정혜진의 예술행위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표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삶에서 보이는 모습과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비판하고 반성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지금은 한 공연의 무대처럼 일시적인 순간일 뿐. 이 순간은 금방 지나가고 헛되다. 스쳐 지나가고 사라질 것들의 무대(공간)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보고싶은 혹은 봐야할 풍경을 그려낸다.”

위에는 제 작업 노트 일부예요. 앞서 말했던 창고 공간 말고, 내 작업 세계와 더 연결될 것

같은 공간은 시간대에 따라 햇빛이 들어오고 어두워지고 하는 과정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창문이 있어서 밖 풍경이 보여도 좋겠다...(그냥 기술력 상관없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ㅎ)

그리고 호텔 문을 열고 들어 갔을 때 제 공간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고 유리벽으로 막혀 있으면 좋겠어요. 관람자는 호텔문 열기 전 공간.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공간, 유리벽 너머의 작업실 공간 그리고 작업실 공간에 달린 창문 밖 풍경까지 합쳐 여러 공간 너머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자신이 있는 장소와 그 너머의 공간이 뒤섞이면서 내가 있어야 하는 공간이 어디일지, 내가 있고 싶은 공간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끊임없이 탐구해간다.”는 저의 작업의 내용을 완성시키고 의미를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쿠쿠

2. 작가노트 + 작업을 하는 이유 +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

저는 제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표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작업하고 있다. 삶에서 보이는 모습과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비판하고 반성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지금은 한 공연의 무대처럼 일시적인 순간일 뿐. 이 순간은 금방 지나가고 헛되다. 스쳐 지나가고 사라질 것들의 무대(공간)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보고싶은 혹은 봐야 할 풍경을 그려낸다.” 이것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저는 창과 문을 매개로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을 넘나든다. 유리창을 볼 때 저희는 유리에 비치는 안쪽 풍경과 유리 밖에 보이는 풍경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여러 시간대와 계절, 빛의 효과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모티브로 지금 저 자신이 있는 장소와 그 너머의 공간이 뒤섞이면서 내가 있어야 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내가 있고 싶은 공간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끊임없이 탐구한다. 저는 숨 쉬고 있는 시간 동안 매일 꿈꾸는 이상향과 실제 체험하고 있는 현실의 장소를 그려낸다.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하지만 제 회화 작품은 한 화면에 뒤섞인 모습을 표현하면서도 분리되어 보이기도 한다. 저는 현실과 꿈의 어느 경계를 늘 인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긴장감을 늘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일상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에서 추상적인 형태의 모티브를 얻는다. 본인은 의식해서 그것들을 추상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리는 과정에서 사물의 표면만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작업 과정에는 그 사물의 본질을 찾아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그때 나 자신이 느끼는 감각을 의식하며 그려낸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호와 상징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질을 찾아내고 느끼는 감각은 재료의 특성과 효과를 이용한다. 각 상황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건성, 수성 재료, 혼합매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물을 이용하거나 굽어내는 등, 우연한 효과를 추구한다.

6. 소재를 얻는 곳 (장소, 사물, 기억(추억), 음악, 사람 등등) 혹은 소재가 없을 때 어떻게, 어디서 찾는지? > 작업이란 연관이 꼭 없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연관이 없어도 우리가 연관지을 수 있음)

주로 일상 속에서 내가 관심있게 바라본 풍경과 어떤 인상 깊었던 기억 속에 이미지에서 소재를 얻는다. 나는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자연 풍경 속에서 소재를 얻는 것 같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비행 중 창밖으로 본 풍경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그 순간 느꼈던 감동과 즐거움을 주로 소재로 꺼내본다.

소재가 없을 때는 집 근처 호수공원을 걸으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공원은 갈 때마다 다양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재는 계속 생겨나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어떤 감정과 상상을 바탕으로 한 모습을 그려낼 땐, 구글에서 내가 참고하고 싶은 이미지를 얻는다. 주로 비가 내리는 풍경이나 꽃, 사막의 건조 등 자연의 이미지를 찾는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고 나서 구상하면 더 생생하게 상상을 재현할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든 나의 일상과 연결하려는 노력을 한다. 너무 멀리서 소재를 찾으면 그 소재들은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돼서 작업이 되지 않는다. 나랑 관련 없는 건 나에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 작업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감정과 생각을 불어넣은 모습을 표현하려 애쓴다.

6-2. 요즘의 관심사

요즘은 추상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것보다 현실에서 보이는 무언가를 찾는 것에 끌리는 것 같다.

(작업 말고 관심사)

꽃을 선물로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꽃은 글로 표현하지 않은 진심(마음)같다.

여기서 나는 꽃을 선물 받는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의미 만들어내고 부여하고 싶지 않다.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풀어내라고 강요받고 싶지 않다. 그냥 꽃이 좋은데? 하지만 굳이 하나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하면 꽃은 일시적이라 좋다. 꽃이 시들고 나면 꽃병이 비워지고 또 다른 꽃을 기다릴 수 있다. 나는 평생 남는 선물, 물질적인 건 필요없다. 나에겐 그냥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내 감정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기억이 행복이고 선물이다. 나는 너무 주변에 많은 걸 남겨두고 싶지 않다. 나는 소박하지만 가장 아름다우며 진심을 담아 하루를 살아낸 추억을 가지며 살고 싶다.